

국내경기는 내림세, 3개월 연속으로 악화

~ 무역마찰 확대로 불투명함 강해져 ~

(조사대상 2만3,149사, 유효회답 9,694사, 회답률 41.9%, 조사개시 2002년5월)

조사결과 포인트

- 2018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49.0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국내경기는 무역마찰의 확대로 불투명함 강해지는 가운데 고유가 등 코스트 부담의 증가로 인하여 내림세를 보였다. 향후는 계속해서 수출이나 설비투자가 더 이상의 내림세를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역마찰의 격화 등 해외리스크가 국내경기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하여 주시할 필요가 있다.
-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악화되고 『건설』 『부동산』 2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고유가 등으로 인한 원재료 가격의 상승이 폭넓은 업계에 마이너스로 작용하여 『제조』가 5개월 연속, 『도매』 『소매』 『운수·창고』 『금융』 이 3개월 연속으로 악화되었다.
- 『토카이』 『킨키』 『시코쿠』 등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악화되고 『홋카이도』 『호쿠리쿠』 2개 지역이 개선되었다. 인력부족이나 연료가격의 상승이 코스트 부담 증가의 요인이 된 한편, 오사카 북부 지진에 의한 영향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2개월만에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 이 모두 악화되었다.

< 2018년 6월의 동향 : 내림세 >

2018년 6월의 경기 DI는 전월 대비 0.4포인트 감소한 49.0로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6월의 국내경기는 고유가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인건비와 수송비의 상승도 더해져 매입단가 DI가 4개월 연속 60대의 고수준으로 추이하였다. 한편, 판매가격의 전가가 약해짐으로 인하여 체감경기의 악화로 이어졌다. 게다가 미중(美中)이 추가 및 보복관세의 실시를 표명하면서 무역마찰의 경계심이 높아져 기업 마인드에 악영향을 미쳤다. 6월18일에 발생한 오사카 북부의 지진은 라이프 라인의 단절, 생산활동의 정체, 물류의 혼란 등을 야기하여 일부 지역의 체감경기를 압박하였다. 국내경기는 무역 마찰의 확대로 불투명함 강해지는 가운데, 고유가 등으로 인한 코스트 부담이 증가함으로 인하여 내림세를 보였다.

< 향후의 전망 : 국면변화의 가능성 >

국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배경으로 수출의 증가가 이어져, 설비투자도 인력부족의 심각화에 따른 생력화 수요로 인하여 더 이상의 내림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쿄올림픽이나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수요도 플러스 재료가 되었다. 개인소비는 완만한 회복이 예상되는 한편,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내림세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한편, 해외동향은 보호무역주의의 확대에 따른 무역마찰의 격화나, 유럽의 경기감속,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향후는 계속해서 수출과 설비투자가 더 이상의 내림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무역마찰의 격화 등 해외리스크가 국내경기를 압박할 가능성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